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강임준 군산시장, 국회 방문 예결위원 등 면담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 막바지 국비 지원 건의를 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분주하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신영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서영호 행정안전위원회장, 인재근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국회 단계 예산 증액 지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군산시가 국회 심의단계 증액을 위해 중점 건의한 사업은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482억),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850억),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사업(3,027억),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88억), 군산시립상품권(386억) 등 총 19개 사업에 995억원 규모다

특히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안이 금년도 20조원에서 내년도 6조원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역경제

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군산시립상품권 예산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단계 증액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강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만나 행정안전부와 예산 증액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비집체로 인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회 활동을 마친 강임준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찾아 MBN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 참석해, 전국 20개 성공 정책에 선정된 '배달의 명수' 플랫폼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이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이 시험가동에 들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군산시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시험가동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이 시험가동에 들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이 24일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 주요공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과 군산시민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관계자들이 2구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99MW 발전단지중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2-2공구 49MW에 대한 전력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시험발전 가동버튼을 작동시켜 본격적인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2구역 발전단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공구별로 사용 전 검사를 구별로 완료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단지 관광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1만8천여평의 군산시민태양공원(가칭)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시민태양공원은 새만금에 서식하는 돌고래(상괘이)를 형상화한 공원으로 공원주변에 연못을 만들어 바다에 떠있는 돌고래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정상에는 전망대와 함께 12개의 소망 디딤돌을 설치해 출생한 달에 해당하는 디딤돌에 올라 소원도 빌 수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해 계절별로 색다른 정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다.

또 12월 초에는 1km 이내 취약계층(다자녀 포함)을 시작으로 시민펀드 모집(투자금 無)을 시작하고, 일반시민들은 시민펀드 투자상품(세전 7%)을 개발해 12월 말경 시민투자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강 시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모델이다”며 “앞으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보건소, A바이러스 검출, 인체감염 주의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회원면 환경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7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및 낚시 금지, AI 발생지역 방문 시 철저한 소독 등 AI 인체감염주의 및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7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AI(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병을 말한다. 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 등을 통해 발생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미래형전기차산업 청년 일자리 직무교육 개최

군산시는 ‘미래형전기차산업 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그린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미래형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사업 참여 청년근로자 40여명과 고용유지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전북새만금산업융합원 대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개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군산시 청년정책 소개 기초노동상식, 전기차산업 현황과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군산의 산업현황의 이해를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여 강사로는 군산 청년센터 ‘군산시 청년들의 인태육 센터장, 자동차융합기술원’ 방동훈 분부장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 ‘철도·역사문화’ 활용 신산업 거점 조성

국토교통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익산 8개 사업 반영 쾌거

익산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철도와 역사문화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을 고도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내륙첨단산업권 조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8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자원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와 분야에 ▲백제왕

궁 문화체험단지 조성(550억원) 미륵사지부터 왕궁리 유적까지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유네스코 명품 기도(U조성사업(498억원)이 포함됐다.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 분야는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철도 교통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이 최종 반영되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익산시와 전주, 정읍, 완주 등 26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을 포함한 6개 시도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할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권을 국가발전의 중심지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 인구 유입 ‘청신호’

익산시가 5년여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부족한 신규 브랜드 아파트 수요를 늘리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시는 이번 주부터 제일 풍경채를 시작으로 숲세권 브랜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산공원 안에 건립되는 1천566세대 규모의 제일 풍경채는 분양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26일부터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다음달 3일부터 특별공급 일정을 시작한다.

마동공원에 1천431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GS자이는 분양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모인, 팥봉, 소리공원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분양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7천5백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숲세권 주거시설과 함께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



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단축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 80.1%로 집단 면역 체계로 돌입한 상황에서 돌파감염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시행한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3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80.1%를 기록했고, 1차 접종률도 84%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22만4천658명이다.

익산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률 목표(70%)를 초과했으나, 면역형

성이 어렵고 집중효과가 감소로 인한 신규 확진과 집단감염 증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4~5개월로 단축하여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8~59세 중 기저질환자, 병원급·의원급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종전 6개월에서 4개월(120일)로 간격이 좁혀졌고, 6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로 조정되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